

엔데믹 시대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 전략 연구: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의 유성교회 적용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김주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Jumin Ki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STUDY OF PASTORAL STRATEG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E ENDEMIC ERA: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EPIC MISSIONAL PARADIGM AND TEE SMALL-GROUP MINISTRY AT YOUSUNG CHURCH**

Jumin Kim

Yousung Church, Daejeo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and communal challenges faced by Korean churches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roposes a practical strategy for ecclesial renewal in the endemic era. The pandemic accelerated the shift from in-person worship to digital formats, weakening communal bonds, reducing participation, and exposing the limitations of gathering-centered church models. These developments call for a renewed missional and community-based framework.

This research employs the EPIC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paradigm proposed by Leonard Sweet as a theoretical lens and explores the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small group community learning model as a practical approach. A qualit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on YOUSUNG CHURCH, which has consistently implemented the TEE small group system since 2006.

The findings reveal that a long-term small group-based discipleship structur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ustaining members' sense of belonging and engagement during the pandemic. When integrated with the EPIC framework, the TEE model strengthened experiential faith formation, participatory involvement, narrative-centered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connectivit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endemic era, Korean churches must transition from event-centered structures to small group-based missional communities. The EPIC-TEE integrated strategy offers a sustainable and contextually relevant model for post-pandemic church renewal.

국문초록

엔데믹 시대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 전략 연구: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의 유성교회 적용

김주민

유성교회, 대전, 대한민국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경험한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 위기를 분석하고, 엔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회복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데믹은 대면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확산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 성도 참여 감소, 다음 세대 이탈 등의 문제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대그룹 중심 교회의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Leonard Sweet 교수의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선교 패러다임을 이론적 틀로 삼고,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을 실천적 적용 모델로 고찰하였다. 특히 유성교회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구조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성교회는 팬데믹 이전부터 소그룹 기반의 신앙 형성과 양육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동체 결속력과 참여성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형성된 TEE 소그룹 공동체 구조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소속감과 참여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EPIC 요소가 구현될 때 경험 중심 신앙 형성과 네트워크형 공동체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엔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대그룹 예배

를 넘어 소그룹 기반의 선교적 공동체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EPIC-TEE 통합 전략이 지속 가능한 교회 회복 모델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xii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xi

### I. 서론

A.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
B. 연구 목적.....	2
C. 연구 질문.....	4
D. 연구 방법 .....	5
E. 연구 범위.....	6
F. 선행연구 검토.....	7
G. 용어 정의 및 개념적 틀 .....	9

###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와 위기

A. 예배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11
B. 공동체성 약화와 소속감 감소.....	11
C. 신앙 참여 구조의 변화.....	12
D. 탈교회화 가속과 다음 세대 문제.....	12
E. 구조적·선교적 위기의 심화.....	13
F. 신학적 기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	13

### III. Leonard Sweet 의 EPIC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EPIC 문화 분석적 배경.....	15
B.	EPIC 모델의 신학적 전제.....	15
C.	EPIC 의 네 가지 핵심 요소.....	16
D.	EPIC 모델의 선교적 함의.....	17
E.	EPIC 패러다임의 신학적 의미와 교회 모델 전환.....	18
F.	한국교회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	22
G.	EPIC 모델과 전통적 교회 모델의 비교 .....	22

**IV.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

A.	TEE 의 개념과 정의 .....	24
B.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구조 .....	24
C.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핵심원리.....	25
D.	TEE 와 성인교육 이론(Andragogy).....	27
E.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신학적 의미.....	27
F.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특징 요약 .....	28
G.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전체과정 .....	29
H.	유성교회 과목별 및 연도별 수료자 현황.....	30
I.	팬데믹 기간의 변화 .....	32
J.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도입 배경 .....	33
K.	운영 구조 및 커리큘럼 .....	34
L.	참여도 및 공동체 변화 분석 .....	34
M.	EPIC 관점에서의 평가(Experiential / Participatory / Image-driven / Connected 기준 분석) .....	35

<b>V. EPIC-TEE 통합 모델 제안</b>	
A.	EPIC 문화 분석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구조의 접점..... 36
B.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 전략..... 38
C.	단계별 적용 매뉴얼 제안..... 39
D.	확장 가능성 및 한계..... 39
E.	유성교회의 TEE 인도자 훈련과정..... 40
<b>VI. 유성교회 사례 분석 결과 종합</b>	
A.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지속성 분석..... 48
B.	팬데믹 전·중·후 비교 분석..... 49
C.	EPIC 관점에서의 종합 평가..... 49
D.	참여자 경험의 질적 분석..... 50
E.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사례분석 결과 종합..... 51
<b>VII. 결론 및 제언</b>	
A.	연구 결과 요약..... 54
B.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적 제언..... 55
C.	신학적 함의..... 55
D.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56
참고문헌 ..... 58	
부록 ..... 60	

## 표 목차

(표 3-1) .....	20
(표 4-1) .....	30
(표 5-1) .....	37
(표 6-1) .....	60
(표 6-2) .....	61
(표 7-1) .....	63
(표 7-2) .....	64

## 그림 목차

(그림 4-1) .....	29
(그림 4-2) .....	30
(그림 5-1) .....	41
(그림 5-2) .....	41
(그림 5-3) .....	42
(그림 5-4) .....	43
(그림 5-5) .....	44
(그림 5-6) .....	45
(그림 5-7) .....	46
(그림 5-8) .....	46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실제적인 토대가 되어준 유성교회와, 늘 목회의 현장에서 배움과 적용의 길을 열어 주신 류기열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신앙과 사역의 현장은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끊임없는 격려와 신뢰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문의 길에서 귀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추천서를 기꺼이 작성해 주신 한남대학교 조용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격려와 학문적 통찰은 본 연구를 보다 깊이 있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후원해 주신 황선연 어머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학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큰 누님 김주원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 따뜻한 권면과 믿음이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늘 따뜻한 말과 격려로 용기를 주었던 작은 누님 김주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이의선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곁에서 지지해 주고 이해해 준 헌신이 없었다면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김다은과 아들 김다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족으로서 함께해 준 시간과 기다림이 이 논문의 완성 뒤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 작은 연구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5.

김주민

# I. 서론

## A.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엔데믹 시대(endemic era)’를 중심 개념으로 사용한다.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적 감염 확산의 위기 상황을 의미하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는 그 이후의 시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한 ‘이후 시점’이 아니라, 감염병이 일상화되며 사회·문화 구조가 재편된 상태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엔데믹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엔데믹 시대’는 코로나19 이후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교회적 환경을 의미하며, 기존 용어들은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사용하되 개념적 중심은 ‘엔데믹 시대’로 통일한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와 공동체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면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교회의 공간성과 공동체성을 재정의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위기 상황을 넘어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sup>

특히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현장에서는 출석 교인 수 감소, 다음 세대 이탈, 헌신도 약화, 공동체 소속감의 약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sup>1</sup>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변화』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2021), 10-18.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 회복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의 교회 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sup>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소가 아니라 교회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적 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Leonard Sweet은 후기 현대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정보 전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 중심의 공동체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3</sup> 그의 EPIC 패러다임은 단순한 예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론적 구조 전환을 요청하는 선교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sup>4</sup>

또한 소그룹 공동체 중심의 신앙 형성 모델은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성래는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도록 돕는 참여적 학습 구조임을 강조하며, 공동체 중심의 제자훈련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교회 사례에 적용하여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회복 전략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 B. 연구 목적

2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15-27.

3 Leonard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7), 43-55.

4 Leonard Sweet, 『소울 쓰나미』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85-96.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경험한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 위기를 분석하고, 엔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실천적 회복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엔데믹 시대는 예배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회의 공동체성, 참여 구조, 제자훈련 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집회 중심의 교회 구조는 대면 예배 중단 상황 속에서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교회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예배 구조의 변화, 공동체성 약화, 참여 감소, 다음 세대 이탈 등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감소 현상이 아니라, 교회 구조와 문화적 환경의 부조화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Leonard Sweet이 제시한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선교 패러다임을 이론적 틀로 고찰하고, 현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 형성과 공동체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Leonard Sweet는 현대 문화가 경험적·참여적·이미지 중심적·네트워크적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하며, 교회 역시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본 연구는 EPIC 모델을 단순한 문화 분석이 아니라 교회 구조 재편의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조성래가 제시한 TEE(신학교육 확장 프로그램)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을 실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 모델이 참여적 제자훈련과 관계 중심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TEE는 평신도 중심의 학습

---

<sup>5</sup>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35-42.

구조와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역동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제공한다.<sup>6</sup> 본 연구는 이러한 학습 구조가 엔데믹 시대에 교회 회복 전략으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넷째, 유성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이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형성된 소그룹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결속과 신앙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통합한 실천적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집회 중심 구조를 넘어 관계 중심의 선교적 공동체 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재구성과 선교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C.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공동체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엔데믹 시대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회복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

<sup>6</sup> 조성래, 『TEE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 학습』 (서울: 티 코리아, 2017), 45-60.

둘째, EPIC 선교 패러다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회복 원리를 제공하는가?

셋째,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그 원리를 어떻게 공동체 구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

넷째, 유성교회 사례는 EPIC과 TEE의 통합적 적용이 실제 교회 회복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 D.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구조적·선교적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엔데믹은 한국교회에 예배의 비대면 전환, 공동체성 약화, 탈교회화 가속, 성도 참여 구조의 변화 등을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과 선교 구조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전환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Leonard Sweet의 EPIC 선교 패러다임을 이론적 틀로 삼는다. Leonard Sweet은 후기 현대 사회를 감각적·관계적·네트워크 중심 문화로 규정하며, 교회가 정보 전달 중심 구조에서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연결(Connected)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이 아니라 선교적

<sup>7</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 15-22.

<sup>8</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45-52.

교회론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sup>9</sup>

또한 본 연구는 조성래의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을 실천적 분석 틀로 활용한다. TEE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참여적·공동체적 신학 교육 모델로,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공동체 재생산 구조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동체 학습 원리는 EPIC의 Participatory와 Connected 요소와 구조적으로 접점을 형성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채택한다. 사례연구는 특정 공동체의 실제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sup>10</sup> 본 연구는 2006년부터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성교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팬데믹 기간과 엔데믹 이후의 변화 과정 속에서 TEE 공동체가 교회 회복과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에 참여한 성도 및 리더로 구성되며, 팬데믹 기간과 엔데믹 이후의 신앙 경험, 공동체 참여, 말씀 적용 경험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 후 주제별 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 E. 연구 범위

<sup>9</sup> Sweet, 『소울 쓰나미』, 88-96.

<sup>10</sup>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 301-320.

첫째, 시간적 범위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엔데믹 전환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유성교회의 TEE 운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2006년 도입 시점부터의 전개 과정을 함께 고찰한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구체적 사례 분석은 유성교회에 한정한다.

셋째, 이론적 범위는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모델에 집중한다.

넷째,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며, 전국 단위 통계 분석은 보조 자료로만 활용한다.

#### F. 선행연구 검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위기에 관한 연구는 신학, 목회학, 종교사회학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예배 확산, 교회 출석률 감소, 공동체성 약화, 다음세대 이탈 등의 현상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는 팬데믹 이후 교회의 출석률 감소와 온라인 예배 정착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한국교회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한다.<sup>11</sup> 이 연구는 엔데믹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운영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임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등의 보고서들은 탈교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sup>11</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 12-25.

지적하며, 교회의 공동체 회복 전략 필요성을 제시한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현상 분석과 통계 자료 제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선교적 구조 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선교적 교회론과 관련하여, Leonard Sweet의 EPIC 패러다임은 후기 현대 사회 속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Leonard Sweet은 교회를 정보 전달 중심 구조에서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 중심의 네트워크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국내에서도 그의 저작 번역과 소개를 통해 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14</sup>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EPIC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거나 예배 문화 변화와 연결시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한국교회 구체적 사례와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한편, 소그룹 및 공동체 중심 목회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특히 제자훈련, 셀 교회, 공동체 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평신도 참여 확대와 교회 성장의 상관관계를 강조해 왔다. 조성래의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은 신학 교육의 현장화와 삶 중심 학습 구조를 강조하며, 공동체 기반 제자훈련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 재생산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TEE의 교육학적 구조나 제자훈련 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팬데믹 이후 교회 회복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sup>12</sup>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과제』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2022), 33-47.

<sup>13</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40-58.

<sup>14</sup> Sweet, 『소울 쓰나미』, 82-97.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위기를 단순한 현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적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로 접근한다. 둘째,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이론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셋째, 이를 실제 유성교회의 사례에 적용하여 구체적 실천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 G. 용어 정의 및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엔데믹 시대(endemic era)’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문화적 구조가 재편된 시기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위기 이후의 회복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형성된 상태로 이해된다.

둘째, ‘공동체성(community)’은 단순한 집합적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신학적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ecclesia)의 본질과 연결된다.

셋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교회를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는 교회론적 개념이다.

넷째,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귀납적 성경연구와 삶의 적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신도 참여형 신앙 형성 모델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본 연구의 이론적 일관성과 분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예배 구조와 공동체 형성 방식, 신앙 참여 형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부 환경의 충격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과 선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장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A. 예배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 체제로 급격히 전환하였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녹화 설교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예배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예배 접근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예배의 공동체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드러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현장 예배 회복률은 완전한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의 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sup>15</sup> 이는 예배가 공동체적 참여 행위에서 개인적 선택 행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B. 공동체성의 약화와 관계 단절

---

<sup>15</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 18-27.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신앙을 전제한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는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를 제한하였고, 이는 공동체적 유대 약화로 이어졌다.

소그룹 모임과 교제 활동의 축소는 교회 소속감 감소로 연결되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 소속감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p>16</sup> 이는 신앙의 개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C. 신앙 참여 구조의 변화

팬데믹은 교회의 사역 참여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대면 중심 봉사 구조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평신도 참여와 헌신 구조가 약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활동 감소가 아니라 교회의 내부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교회가 성도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참여 구조의 변화는 구조적 위기로 이해될 수 있다.

### D. 탈교회화 가속과 다음 세대 문제

팬데믹은 이미 진행 중이던 탈교회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특히 청년층과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온라인 환경에

<sup>16</sup>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과제』, 35-42.

익숙한 세대일수록 교회 출석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과 공동체 소속 의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 E. 구조적·선교적 위기의 심화

이상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회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예배 중심의 일방향 구조, 프로그램 의존적 사역 모델, 성직자 중심 운영 체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회복은 단순한 출석 회복이나 프로그램 재개를 넘어, 교회의 존재 방식과 선교 구조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는 경험 중심, 참여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적 전환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다룰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F. 신학적 기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을 논의함에 있어,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필수적인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sup>17</sup>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서울: 한목협, 2022), 50-63.

묘사된다(고린도전서 12장). 이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47절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말씀,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구조를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의 집합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신앙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서로’라는 개념은 신약 공동체 이해의 핵심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짐을 지는 관계는 교회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러한 성경적 공동체 이해는 엔데믹 이후 개인화된 신앙 형태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제공한다.

### III. Leonard Sweet의 EPIC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A. EPIC 모델의 등장 배경

Leonard Sweet은 후기 현대(postmodern) 사회를 감각적이며 네트워크 중심적인 문화로 규정하며, 기존의 이성 중심·텍스트 중심 교회 구조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20세기 교회가 정보 전달과 조직 유지에 집중하였다면, 21세기 교회는 관계와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Leonard Sweet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인해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문화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 역시 일방향적 설교 구조에서 벗어나 감각적·관계적 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sup>19</sup>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EPIC 모델이다.

#### B. EPIC 모델의 신학적 전제

EPIC은 단순한 문화 분석 이론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신학적 제안이다. Leonard Sweet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

<sup>18</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32-45.

<sup>19</sup> Sweet, 『소울 쓰나미』, 67-82.

공동체”로 이해하며,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와 참여에 있다고 본다.<sup>20</sup>

그는 성육신 사건을 모델로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듯이 교회 역시 문화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유지 중심이 아닌 선교적 참여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시도이다.

### C. EPIC의 네 가지 핵심 요소

EPIC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 1. Experiential(경험 중심)

Leonard Sweet 은 후기 현대 사회를 “경험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의 사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1</sup> 예배는 정보 수용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총체적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 2. Participatory(참여 중심)

현대 문화는 수동적 청중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를 요구한다. 교회 또한

---

<sup>20</sup> Ibid., 101-115.

<sup>21</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58-64.

관람형 구조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사역과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sup>22</sup> 이는 평신도 리더십과 공동체 기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이다.

### 3. Image-driven(이미지 중심)

디지털 문화는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스토리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Leonard Sweet 은 성경 자체가 이야기 중심의 계시임을 강조하며, 복음 전달 역시 내러티브적·상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설교와 예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 4. Connected(연결 중심)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성은 핵심 가치이다. 교회는 고립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대, 문화와 연결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sup>23</sup> 관계적 연결 속에서 복음은 확장된다.

## D. EPIC 모델의 선교적 함의

EPIC 모델은 단순한 예배 혁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구조 전환을 요구한다.

<sup>22</sup> Sweet, 『소울 쓰나미』, 120-134.

<sup>23</sup> Ibid., 150-162.

이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교회는 정보 중심 기관에서 관계 중심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성직자 중심 구조에서 평신도 참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와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팬데믹 이후 공동체 약화와 참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 E. EPIC 패러다임의 신학적 의미와 교회 모델 전환

### 1. EPIC 패러다임의 신학적 의미 확장

Leonard Sweet이 제시한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패러다임은 단순한 문화 분석 범주를 넘어, 후기 현대 사회에서 신앙 형성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신학적 틀로 이해될 수 있다. EPIC은 디지털 환경과 감각 중심 문화, 관계 중심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교회가 기존의 인지 중심·전달 중심 구조를 넘어 새로운 신앙 형성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EPIC은 신앙의 경험성(Experiential)을 강조한다. 이는 신앙을 단순한 교리적 이해나 지식 습득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실존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을 ‘아는 것(knowing)’에서 ‘사는 것(living)’으로 전환시키며, 실천적

신학(practical theology)의 핵심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 참여성(Participatory)은 신앙 형성 과정에서 신자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한다. 이는 전통적인 설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질문과 토론, 나눔을 통한 상호작용적 신앙 형성을 지향한다. 참여는 단순한 활동 증가가 아니라, 신앙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임성과 연결된다.

셋째, 이미지 중심성(Image-driven)은 텍스트 중심의 인지 구조를 넘어, 이야기와 상징, 시각적 요소를 통해 신앙을 전달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후기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영향력을 반영하며, 성경 자체가 내러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연결성(Connected)은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교회를 단순한 예배 집합체가 아니라 관계적 공동체로 이해하게 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EPIC 패러다임은 후기 현대 문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회론적 전환(ecclesiological shift)을 요청하는 신학적 모델로 기능하며, 신앙 형성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24</sup>

## 2. 기존 교회 모델과 EPIC 패러다임의 비교

EPIC 패러다임의 의의는 기존 교회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

<sup>24</sup> Ibid., 67-82.

드러난다. 전통적인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강단 중심, 집합 중심, 전달 중심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화 시대와 근대적 사고 구조 속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였으나, 후기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교회 모델은 설교를 중심으로 한 일방향적 전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신자는 주로 수동적 청중의 위치에 머물며, 신앙 형성은 주로 지식 전달과 교리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EPIC 패러다임은 다방향적 소통 구조를 지향하며, 신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기존 모델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확신과 도덕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EPIC은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회를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연결된 관계망’으로 재정의하게 만든다.

다음의 비교는 이러한 차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다(표 3-1).

구분	기존교회모델	EPIC패러다임
신앙 형성 방식	지식 전달 중심	경험 중심
참여 구조	수동적 참여	능동적 참여
매체	텍스트 중심	이미지, 스토리중심
공동체 이해	집합 중심	관계 중심
소통 방식	일방향	상호작용

[표 3-1. 기존교회모델과 EPIC패러다임의 구조분석]

이러한 비교를 통해 EPIC은 단순한 방법론적 대안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신학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틀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 3. EPIC 패러다임의 성경적 근거

EPIC 패러다임은 현대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핵심 요소들은 성경적 전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EPIC은 단순히 현대적 전략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 형성 원리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경험성(Experiential)은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체험의 전통과 연결된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참여성(Participatory)은 예수의 제자훈련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질문하고, 함께 생활하며, 사역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앙 형성이 참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셋째, 이미지 중심성(Image-driven)은 예수의 비유(parables)에서 확인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추상적 개념보다 씨 뿌리는 농부, 잃은 양, 겨자씨 등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신앙의 진리가 이야기와 이미지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결성(Connected)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초대교회가 말씀,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에 힘쓰며

<sup>25</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32-45.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앙이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EPIC 패러다임은 성경적 신앙 형성 원리를 현대 문화 속에서 재해석한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신학적·실천적 틀을 제공한다.<sup>263</sup>

#### F. 한국교회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EPIC 모델은 후기 현대 문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모든 문화적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험 중심 신앙이 감정주의로 흐를 위험성, 이미지 중심 소통이 신학적 깊이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이후 공동체 회복과 참여 구조 재구성이 요구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EPIC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경험·참여·연결 중심 구조는 소그룹 공동체 모델과 결합될 때 더욱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 G. EPIC 모델과 전통적 교회 모델의 비교

EPIC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 교회 구조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달 방식에서 전통적 교회는 설교 중심의 일방향 구조를 가지는 반면, EPIC 모델은 참여와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

<sup>26</sup> Craig L. Blomberg, *Interpreting the Parables* (Downers Grove, IL: IVP, 1990), 15-28.

둘째, 신앙 형성 방식에서 전통적 모델은 교리 교육 중심인 반면, EPIC은 경험과 실천을 강조한다.

셋째, 공동체 구조에서 전통적 교회는 조직 중심 구조를 가지는 반면, EPIC은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론적 이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 IV.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이론

### A. TEE의 개념과 정의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는 기존의 신학교 중심 교육 구조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신학 교육과 평신도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교육 모델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제자훈련 구조로 이해된다.

TEE는 ‘교육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교에 국한된 신학 교육을 교회 현장으로 확장시키며,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역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TEE는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 모델로서, 신앙의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성장을 지향한다.

### B.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구조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개인 학습과 공동체 학습이 결합된 이중 구조를 가진다.

첫째, 학습자는 매주 정해진 교재를 통해 개인적으로 예습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며 능동적으로 말씀을 탐구하게 된다.

둘째, 공동체 모임(세미나)에서는 학습자들이 모여 서로의 답을 나누고 토론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은 개인의 이해를 넘어 공동체적 통찰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ive learning)
- 적용 중심 학습(Application-centered learning)

TEE 교재는 이러한 학습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학습자는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하고 모임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 C.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핵심 원리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1. 참여 중심 원리(Participatory Learning)

TEE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완성한다.

이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학습자의 능동성을 극대화한다.

## 2. 경험 중심 원리(Experiential Learning)

TEE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한 경험을 나누며, 신앙이 실제 삶과 연결되도록 한다.

이는 신앙을 이론이 아닌 실천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 3. 공동체 중심 원리(Community-based Learning)

TEE는 개인 학습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은 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깊어지며, 이는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4. 재생산 원리(Multiplication)

TEE는 단순히 학습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또 다른 학습자를 양육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제자훈련의 핵심 원리와 연결되며,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형성한다.

#### D. TEE와 성인교육 이론(Andragogy)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현대 성인교육 이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첫째, 성인교육은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이해한다. 이는 TEE의 자기주도적 학습 구조와 일치한다.

둘째, 성인학습은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삶의 경험은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되며, 이는 TEE의 적용 중심 학습과 연결된다.

셋째, 문제 해결 중심 학습(problem-centered learning)은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TEE의 실천적 구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TEE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춘 학습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E.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신학적 의미

TEE는 단순한 교육 방법론을 넘어, 교회의 본질과 깊이 연결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는 ‘만인제사장’ 사상을 실천하는 구조이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이 특정 계층에 제한되지 않는다.

둘째, TEE는 교회를 ‘학습 공동체’로 재정의한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이해된다.

셋째, 이는 제자훈련(discipleship)의 구조적 실현 방식이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자 양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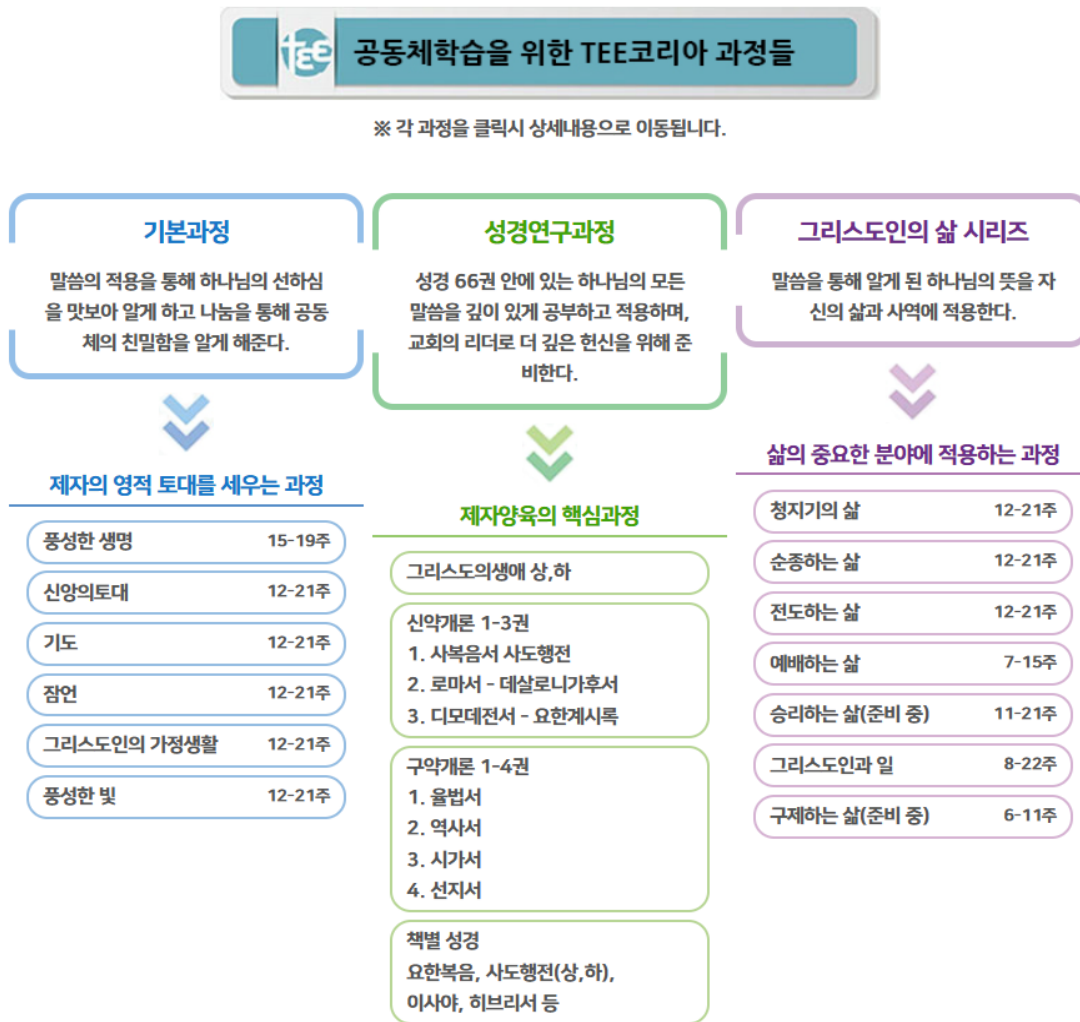
#### F.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특징 요약

TEE 공동체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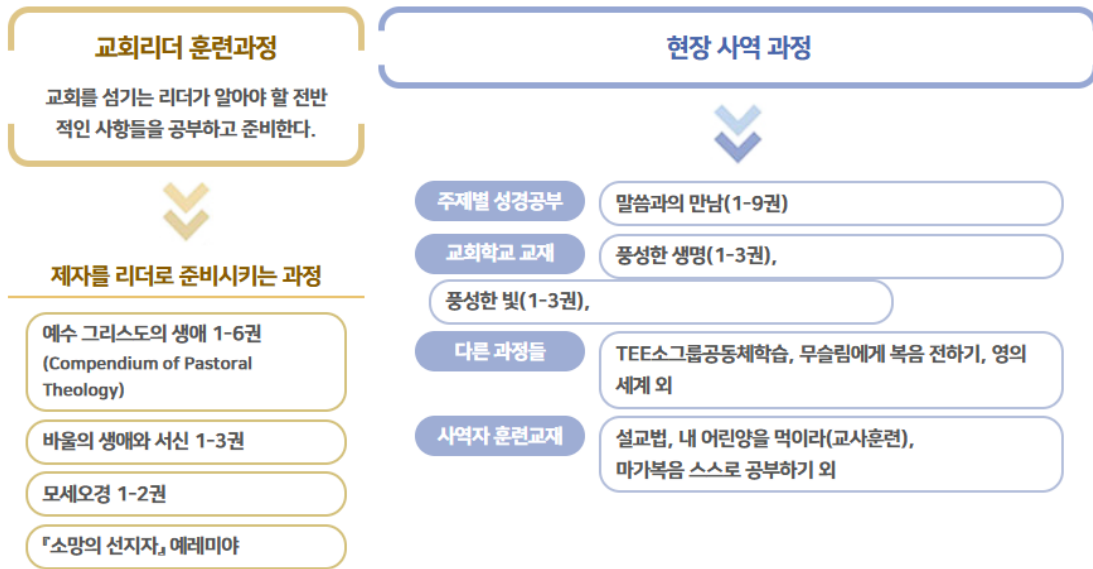
- 말씀 중심(Word-centered)
- 참여 중심(Participatory)
- 적용 중심(Application-based)
- 공동체 중심(Community-oriented)
- 재생산 구조(Multiplication structure)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개인화와 공동체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G.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전체과정(그림 4-1, 4-2)



[그림 4-1.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기본과정 및 성경연구과정]



[그림 4-2.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교회리더 훈련과정]

H. 유성교회 과목별 및 년도별 수료자 현황(표 4-1)

TEE 단계별 수료자 현황(2025년 하반기 기준)			
단 계	수료자	단 계	수료자
풍성한 생명	762	사도행전 상	46
풍성한 빛	381	사도행전 하	38
기도	242	요한복음	34
가정생활	86	예수생애	362
신앙의 토대	217	청지기의 삶	68
잠언	173	순종의 삶	31
신약개론 1	65	그리스도의 생애 상	35
신약개론 2	44	그리스도의 생애 하	19
신약개론 3	15	그리스도인과 일	32

구약개론 1	45	예배하는 삶	111
구약개론 2	36	전도하는 삶	18
구약개론 3	32		
구약개론 4	34	총계	2,911명

연도별 수료인원 현황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17	14	10	8	8	9	7	19	10
하반기	91	168	76	106	72	77	70	115	133	80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79	74	53	143		41	27	25	49	53
하반기	81	78	75	115	20	24	52	44	53	24

[표 4-1. TEE 과목별 수료인원과 연도별 수료자]

유성교회는 2006년 TEE(Training for Effective Evangelism) 소그룹 공동체학습을 도입한 이후 이를 교회의 핵심 양육 체계로 정착시켜 왔다. TEE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그룹을 기반으로 한 귀납적 성경연구와 삶의 적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학습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강의식 제자훈련과 구별된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유성교회의 TEE 누적 수료 인원은 총 2,911명에 이른다. 이는 단기간의 일시적 사역이 아니라 약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적 양육 체계임을 보여준다. 단계별 수료 현황을 분석하면, 기초 과정인

「풍성한 생명」(762명), 「풍성한 빛」(381명), 「예수생애」(362명)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료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초기 신앙 형성과 기초 양육 단계에서 TEE가 안정적으로 기능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약개론 3」(15명), 「그리스도의 생애 하」(19명) 등 심화 단계로 갈수록 수료 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단계적 제자훈련 구조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형 성장 패턴과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초 과정 참여자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중·심화 단계로 진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수료 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상·하반기를 합산한 연평균 수료 인원은 약 140명에서 160명 사이를 유지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200명 이상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TEE가 교회 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양육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엔데믹 이전 유성교회의 양육 체계는 대규모 집회 중심 구조가 아니라, 소그룹 단위의 반복적·순환적 학습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I. 팬데믹 기간의 변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은 유성교회 TEE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상반기에는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공동체 기반 학습 구조가 외부 환경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소그룹 공동체학습을 재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 수료 인원은 20명으로 급감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며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였다. 비록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구조 자체는 유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도 귀납적 성경연구의 기본 구조와 토의 중심 운영 방식은 유지되었다. 이는 TEE가 단순히 공간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에 기초한 학습 구조임을 보여준다. 또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리더십의 분산과 책임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J.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도입 배경

유성교회의 TEE 도입은 목회적 필요와 양육 철학의 재정립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류기열 목사 부임 이후 교회는 제자훈련 도입을 준비하였으나, 준비 과정에서 접하게 된 TEE의 귀납법적 성경연구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강의 중심 제자훈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학적 이해를 요구하였으며, 참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TEE는 관찰-해석-적용의 단계를 통해 성도 스스로 말씀을 탐구하도록 돕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삶의 적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동체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TEE 도입은 단순한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교회의 양육 패러다임을 ‘전달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K. 운영 구조 및 커리큘럼

유성교회의 TEE는 상·하반기 학기제로 운영되며, 단계별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기초 과정, 중급 과정,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운영 방식은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며, 사전 과제 수행과 모임 내 토의를 핵심 구조로 한다. 모든 참여자는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강의자가 아니라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영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또한 장기적 반복을 통해 리더 재생산 구조를 형성하며, 교회의 내부 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L. 참여도 및 공동체 변화 분석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유성교회의 TEE는 기초 과정에서 높은 참여율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새가족 정착 및 초기 신앙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참여 인원이 감소하는 현상은 장기적 헌신 구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엔데믹 시기에는 참여 인원이 급감하였으나, 온라인 전환을 통해 구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조직적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엔데믹 이후에는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하며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적 측면에서 볼 때, TEE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교회 전체의 관계 밀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 M. EPIC 관점에서의 평가

Leonard Sweet의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관점에서 유성교회의 TEE 소그룹 공동체학습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periential 측면에서 TEE는 말씀의 삶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체험적 신앙 형성을 지향한다.

둘째, Participatory 측면에서 모든 참여자가 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능동적 학습 구조를 구현한다.

셋째, Image-driven 측면에서 성경 이야기와 예수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스토리 기반 학습의 성격을 지닌다.

넷째, Connected 측면에서 소그룹 구조는 개인과 공동체, 말씀과 삶,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적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성교회의 TEE는 EPIC 패러다임의 요소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 전략과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적 의미를 지닌다.

## V. EPIC-TEE 통합 모델 제안

### A. EPIC 문화 분석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구조의 접점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의 예배 형태뿐 아니라 신앙 형성 방식 자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강단 중심, 집합 중심, 전달 중심 구조는 급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Leonard Sweet이 제시한 EPIC 패러다임은 후기 현대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분석 틀로 기능한다.<sup>27</sup>

EPIC은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Image-driven), 연결성(Connected)을 핵심 코드로 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 형성 방식이 어떠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문화 신학적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디지털 환경과 개인화된 신앙 형태 속에서 이러한 요소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sup>28</sup>

한편, TEE(신학적 교육을 통한 평신도 훈련)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귀납적 성경연구와 삶의 적용을 강조하며, 소그룹 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EPIC의 Participatory와 Experiential 요소와 구조적으로 접점을 형성한다. 또한 정기적 모임과 관계 중심 학습 구조는 Connected

---

<sup>27</sup> Sweet, 『소울 쓰나미』, 67-82.

<sup>28</sup> Sweet, 『포스트모던 순례자』, 32-45.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EPIC은 문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TEE는 구조적 실행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EPIC이 “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적·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면, TEE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점에서 EPIC-TEE 통합 모델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매개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EPIC-TEE 간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의 표 5-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EPIC 요소	TEE 구조	구체적 실행방식
Experiential	적용 중심 과제	삶의 적용 나눔, 실천 보고
Participatory	소그룹 토의	질문 기반 귀납적 토의
Image-driven	스토리 기반 성경	내러티브 나눔+시청각 자료
Connected	공동체 네트워크	오프라인+온라인 관계망

[표 5-1. EPIC-TEE 구조대응표]

특히 Image-driven 요소는 기존 TEE의 텍스트 중심 교재 구조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요구된다.

첫째, 성경 본문을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하여 참여자들이 ‘장면’을 상상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둘째, 영상 클립, 이미지 카드, 타임라인 시각자료 등을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

셋째, ‘내 이야기로 재서술하기’ 활동을 통해 텍스트를 이미지적 경험으로 전환한다.

#### B.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를 위한 적용 전략

엔데믹 상황은 단순한 회복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목회 환경의 형성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의 확산, 신앙의 개인화, 공동체 결속력의 약화는 교회가 구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sup>29</sup>

첫째, 예배 중심 구조에서 공동체 중심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예배는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앙 성숙이 보장되지 않는다. 소그룹 기반의 학습 공동체는 신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구조가 된다.

둘째, 전달 중심 교육에서 참여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TEE의 귀납적 성경연구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도록 돕는다. 이는 EPIC의 Participatory 코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오프라인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온라인 연결망을 보조 구조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확보가 아니라, 공동체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넷째, 신앙 형성을 지식 습득이 아닌 삶의 적용과 실천으로 확장해야 한다. EPIC의 Experiential 요소는 신앙을 경험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이는 TEE의 적용 중심 학습과 일치한다.

이러한 전략은 프로그램 도입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재구조화를 목표로

<sup>29</sup> Sweet, 『소울 쓰나미』, 70-75.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 C. 단계별 적용 매뉴얼 제안

EPIC-TEE 통합 모델은 일회성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 실행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를 다섯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문화 및 공동체 진단 단계이다. 교회의 참여율, 연령 구조, 온라인 활용 수준, 소그룹 활성화 등을 분석하여 EPIC 요소 가운데 취약 영역을 확인한다.

둘째, 리더 재훈련 단계이다. 소그룹 리더가 전달자가 아니라 촉진자(facilitator)로 기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질문 중심 진행 방식과 삶의 적용 강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셋째, 커리큘럼 EPIC 통합 강화 단계이다. 기존 TEE 교재에 경험 과제, 시청각 자료, 나눔 구조를 강화하여 EPIC 요소를 구조적으로 반영한다.

넷째, 하이브리드 공동체 구축 단계이다. 오프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다섯째, 평가 및 순환 구조 확립 단계이다. 참여도, 적용 실천율, 공동체 만족도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한다.

이 단계들은 선형 구조가 아니라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지속적 재조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 D. 확장 가능성 및 한계

EPIC-TEE 통합 모델은 한국교회 다수의 중형 교회 및 지역 교회에 적용 가능성을 가진다. 특히 평신도 중심 구조와 소그룹 기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리더 역량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그룹 리더의 신학적 준비와 영적 성숙이 부족할 경우 구조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격차 문제이다. Connected 요소의 강화는 디지털 활용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프로그램화의 위험성이다. EPIC-TEE 모델이 단순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경우, 문화 전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구조적 도입 이전에 교회의 신학적 방향성과 공동체 비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E. 유성교회의 TEE 인도자 훈련과정

유성교회는 2006년부터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시작하였다. 인도자의 부재로 인해 군부대에서 위탁하여 장로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와 집사로 구성된 28명의 신청자를 인도자훈련과정으로 수료하게 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일년에 2회 인도자 훈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수료한 인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반편성을 시작하였다(그림 5-1, 5-2, 5-3).

목요일반 (오후 7 : 00 - 9 : 00)			
장 소 : 당회실		인도자 : 임종윤 목사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김귀중	장로	
2	김석범	장로	
3	김성현	장로	
4	김종은	장로	
5	송근일	장로	
6	장상식	장로	
7	김덕중	안집	
8	장준근	안집	
9			

[그림 5-1. 2006년 초기 반구성표]

목요일 A반 (오전 10 : 00 - 12 : 00)				목요일 B반 (오전 10 : 00 - 12 : 00)			
장 소 : 세미나실		인도자 : 이해경 집사		장 소 : 휴게실		인도자 : 서희정 집사	
번호	이름	직분	비고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길은숙	집사		1	강성혜	권사	
2	노은	집사		2	고홍규	권사	
3	박신원	집사		3	김정진	권사	
4	박은수	집사		4	이재욱	권사	
5	박재민	집사		5	김영숙b	집사	
6	박혜옥	집사		6	노재민	집사	
7	성은정	집사		7	신동숙	집사	
8	정은미	집사		8	장진경	집사	
9	정진이	성도		9			

목요일 C반 (오전 10 : 00 - 12 : 00)				목요일 D반 (오전 10 : 00 - 12 : 00)			
장 소 : 유치부실		인도자 : 박경숙 집사		장 소 : 당회실		인도자 : 민명기 권사	
번호	이름	직분	비고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손영남	권사		1	강금례	권사	
2	오경화	권사		2	김양순	권사	
3	정정례	권사		3	김정규	권사	
4	김명선	집사		4	박혜섬	권사	
5	김명희	집사		5	오다미	권사	
6	박영순	집사		6	이정숙a	권사	
7	오순자	집사		7	최홍자	권사	
8	이명숙	집사		8	이상정	집사	
9	채경자	집사		9			

[그림 5-2. 2006년 반 구성표 2]

화요일 (오후 7 : 00 - 9 : 00)				목요일 (오후 7 : 00 - 9 : 00)			
장 소 : 당회실			인도자 : 최은식 집사	장 소 : 휴게실			인도자 : 조윤옥 목사
번호	이름	직분	비고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성경희	권사		1	김숙자	권사	
2	임선숙	권사		2	유연숙	권사	
3	최혜경	권사		3	이경은	권사	
4	김인숙a	집사		4	채정숙	권사	
5	이숙영	집사		5	홍숙연	권사	
6	조미경	집사		6	박태숙	집사	
7	최소영	집사		7	이현주	집사	
8	김은주	성도		8	황영희	집사	
9				9	한지혜	성도	

토요일 (오후 5 : 00 - 7 : 00)			
장 소 : 휴게실			인도자 : 류기열 목사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윤영숙	권사	
2	이영자b	권사	
3	주종미	권사	
4	김의숙b	집사	
5	김추자	집사	
6	서현섭	집사	
7	이선옥	집사	
8	채순일	집사	
9	이정숙b	성도	

[그림 5-3. 2006년 반 구성표 3]

지식전달 중심의 성경공부들과 다르게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지식과 행동과 성품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부족한 인도자 훈련의 내용들을 수정하고 재교육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런 인도자 재훈련의 과정에 유성교회는 많은 인도자들이 참여하였고 리더 역량 의존성이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도자 재훈련 과정을 통해서 리더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이 시작되는 2020년 전까지는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2020년 상반기 모든 모임이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를 위해

인도자들을 모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Zoom 교육에 참여시켜 온라인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진행했다. 아래는 Zoom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사진과 실제로 온라인으로 TEE를 진행하는 모습이다(그림 5-4, 5-5).



[그림 5-4. 비대면 진행을 위한 인도자 Zoom 교육]



[그림 5-5. Zoom을 통한 실제 비대면 TEE모임]

유성교회는 유성교회 내의 인도자 교육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의 지도자(목회자) 훈련을 위해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받은 인도자들의 코치 역할도 담당하였다. 아래는 2019년도 TEE 목회자세미나 194차에 진행된 교육의 모습과 각 반별 실제 인도자 훈련의 실습 모습이 담겨있다(그림 5-6,

5-7).



[그림 5-6. 2019년도 TEE 목회자세미나 진행사진]



[그림 5-7. 이론교육 이후 소그룹 실습사진]



[그림 5-8. 이론 교육 이후 소그룹 실습사진 2]

마지막 사진에 등장하는 노란색 명찰은 유성교회 이경은 권사로 인도자

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인도자로서의 경험이 5년 이상 되었으며 목회자들을  
코치할 수 있는 코치 클리닉의 과정을 이수받아 실제 목회자 세미나의 코치로  
활동하는 사진이다(그림 5-8).

## VI. 유성교회 사례 분석 결과 종합

### A.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지속성 분석

유성교회의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구조적 양육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일시적 중단 이후 온라인 전환을 통해 재개되었고, 엔데믹 이후 다시 오프라인 중심 구조로 복귀하였다는 점은 그 지속성과 적응성을 동시에 입증한다.

이러한 지속성은 세 가지 요소에서 기인한다. 첫째, 교회 지도자의 명확한 철학적 확신이다. TEE는 제자훈련의 대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적 제자 형성이라는 구조적 방향 전환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둘째, 상·하반기 정기적 운영 구조이다. 학기제 운영은 사역의 리듬을 형성하며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단계적 커리큘럼 체계이다. 이는 성도의 성장 경로를 명확히 하여 참여 동기를 강화하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도 소그룹 기반 양육 체계를 유지한 교회일수록 공동체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이러한 통계는 유성교회의 사례가 단지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 모델로서 의미를 가질 수

---

<sup>30</sup>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넘버즈, 2023년 6월 20일,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8](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8) (최종접속 2026년 4월 3일).

있음을 시사한다.

### B. 팬데믹 전·중·후 비교 분석

유성교회 사례를 팬데믹 이전, 팬데믹 기간, 팬데믹 이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팬데믹 이전은 오프라인 중심 소그룹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이다. 정기적 대면 모임과 공동체 나눔 구조는 관계적 밀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교회 내 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팬데믹 기간에는 2020년 상반기 일시적 중단을 경험하였다. 이는 공간 중심 공동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소그룹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역을 재개하였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구조가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공동체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회복하였으나, 온라인 경험은 보조적 소통 구조로 남게 되었다. 이는 단절이 아닌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팬데믹은 공동체를 약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구조를 재구성하게 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 C. EPIC 관점에서의 종합 평가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EPIC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Experiential 측면에서, 귀납적 성경연구와 삶의 적용 과제는 신앙을 경험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는 신앙을 단순한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으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Participatory 측면에서, 소그룹 토의와 나눔은 모든 구성원을 학습의 주체로 세웠다. 이는 강의 중심 구조보다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Image-driven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전통적 교재 중심 구조는 시각적·디지털 요소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향후 EPIC 통합 모델에서는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

Connected 측면에서는 정기 모임과 온라인 보조 구조가 관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한 핵심 요소였다.

따라서 유성교회 사례는 EPIC의 네 요소 중 세 영역에서 높은 적합성을 보이며, 한 영역에서는 보완 가능성을 가진 구조로 평가된다.

#### D. 참여자 경험의 질적 분석

##### 1. 참여 경험의 유지(Participatory)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그룹 참여 구조는 일정 부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은 ‘수동적 시청’이 아닌 ‘능동적 나눔’ 경험을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온라인이라 집중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A)

“예배는 혼자 드리지만, 소그룹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B)

이러한 진술은 TEE 구조가 EPIC의 Participatory 요소를 온라인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경험 중심 신앙 형성(Experiential)

인터뷰 참여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 을 넘어 ‘살아내는 경험’ 으로 인식하였다.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살아보고 나누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여자 C)

이는 TEE의 적용 중심 구조가 EPIC의 Experiential 요소와 긴밀히 연결됨을 시사한다.

### 3. 공동체 연결성(Connected)

“혼자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참여자 D)

이는 Connected 요소를 강화함을 보여준다.

## E.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학습 사례분석 결과 종합

### 1. 참여적 신앙의 강화(Participatory Faith)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참여자들의 수동적 신앙 태도를 능동적 참여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터뷰 분석에서도 모든 참여자가 “직접 나눔과 실천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료자 소감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매주 나눔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G, 부록 E)

### 2. 경험 중심 신앙으로의 전환(Experiential Faith)

참여자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신앙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소감문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확인된다.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참여자 I, 부록 E)

### 3. 공동체성 회복(Connected Faith)

코로나 이후 약화된 공동체성이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을 통해 회복되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H, 부록 E)

#### 4. 총괄 결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유성교회의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참여(Participatory), 경험(Experiential), 공동체성(Connected)의 측면에서 신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터뷰 자료와 수료자 소감문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 VII. 결론 및 제언

### A.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EPIC 선교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학습의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로서 유성교회의 TEE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구조는 소그룹 기반 공동체였다.

둘째, 참여 중심 학습은 신앙의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온라인 전환 경험은 공동체 구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EPIC 문화 분석은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Leonard Sweet의 EPIC 패러다임과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후기 현대 문화 속에서 교회의 신앙 형성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통합 모델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EPIC은 변화된 문화 환경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며, TEE는 이를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유성교회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델이 단순한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동체 안에서 참여, 경험,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EPIC-TEE 통합 모델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적용 가능한 목회적 대안으로서 유의미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 B.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적 제언

첫째, 예배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소그룹 중심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달식 교육에서 참여식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평신도 리더십 개발을 구조화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교회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 C. 신학적 함의

본 연구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배 중심의 집합 구조로 이해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교회를 참여, 경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유기적 공동체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적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제자훈련의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신앙 형성이 지식 전달 중심에서 삶의 적용과 공동체적 실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이러한 전환을 구조적으로 구현하는 모델로서 기능하며, EPIC 패러다임은 그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회는 더 이상 내부 중심적 구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연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확장되는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EPIC-TEE 통합 모델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PIC-TEE 통합 모델은 특정 교회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회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소그룹 기반 목회를 지향하는 중형 교회 및 지역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과 결합할 경우, 오프라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연결망을 보조 구조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공동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목회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PIC-TEE 모델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장기적 목회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회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 D.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단일 교회 사례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정량적 통계 분석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 교회 비교 연구와 장기적 추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PIC의 Image-driven 요소를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도 요구된다.

향후 교회는 단순한 회복의 단계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앙 형성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EPIC-TEE 통합 모델은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성경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회 유형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본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 저서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

조성래.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 『TEE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 학습』. 서울: 티 코리아, 2017.

## II. 번역서

Sweet, Leonard. 『포스트모던 순례자』.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7.

----- . 『소울 쓰나미』.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 III. 국외 저서

Blomberg, Craig L. *Interpreting the Parables*. Downers Grove, IL: IVP, 1990.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IV. 연구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서울: 한목협, 2022.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변화』.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2021.

----- .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과제』. 서울: 한국교회탐구센  
터, 2022.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리포트』.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넘버즈.  
2023년 6월 20일.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8](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8) (최종접속  
2026년 4월 3일).

## 부록(Appendix)

## A.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경험에 관한 인터뷰 질문지」

본 인터뷰는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 전략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1. 기본 정보

- 연령대:
- 성별:
- 교회 출석 기간:
- TEE 참여 기간:
- 직분(있을 경우):

## 2. 본 인터뷰 질문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3. 팬데믹 기간 동안 공동체 소속감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4. ZOOM을 활용한 TEE 소그룹 참여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5.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그룹 참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TEE 소그룹에서의 나눔과 토의는 기존 예배나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7. 말씀을 ‘삶에 적용’ 하는 경험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참여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9. 엔데믹 이후(대면 회복 이후) 공동체 경험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10. 앞으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표 6-1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경험에 관한 질문지]

## B. 인터뷰 대상자 정보

코드	연령	성별	직분	TEE 참여기간
A	40대	남	집사	8년
B	30대	여	청년	3년
C	50대	여	권사	10년
D	20대	남	청년	2년
E	40대	여	구역장	6년
F	60대	남	장로	12년

[표 6-2 인터뷰 대상자표]

## C. 참여자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본 연구는 유성교회 TEE 소그룹 공동체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팬데믹 및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신앙 경험과 공동체 변화를 분석하였다.

## (1) Participatory: 참여 구조의 지속성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소그룹 참여는 단순한 유지 수준을 넘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이라서 더 소극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B)

“예배는 혼자 드리는 느낌이었지만, 소그룹에서는 반드시 나눔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여자 D)

이러한 진술은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구조가 단순한 모임 유지가 아니라 참여를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이는 EPIC의 Participatory 요소가 비대면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 (2) Experiential: 경험 중심 신앙 형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언급하였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보고 나누는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참여자 A)

“적용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C)

이는 TEE의 적용 중심 구조가 EPIC의 Experiential 요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신앙 형성이 인지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 (3) Connected: 공동체 연결성의 회복

팬데믹 기간 동안 약화될 수 있었던 공동체성은 소그룹을 통해 일정 부분 유지되었다.

“혼자 예배드릴 때는 신앙이 약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소그룹 때문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E)

“온라인이지만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F)

이는 소그룹이 단순한 교육 단위가 아니라 관계적 연결망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 (4) Image-driven: 보완 필요 영역

일부 참여자들은 텍스트 중심 학습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교재 중심이다 보니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여자 B)

이러한 응답은 EPIC의 Image-driven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시각 자료와 스토리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D. 인터뷰 데이터의 주제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를 개방 코딩(open coding) → 축 코딩(axial coding) →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 1. 개방 코딩(Open Coding)

원자료	코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참여 증가
“신앙이 이어졌다”	지속성
“살아보고 나눈다”	적용 중심
“혼자가 아니었다”	공동체 연결
“딱딱하다”	이미지 부족

[표 7-1 개방 코딩]

## 2. 축 코딩(Axial Coding)

범주	하위 코드
참여성	참여 증가, 책임감
경험성	적용, 체험

범주	하위 코드
연결성	관계 유지, 소속감
한계	텍스트 중심

[표 7-2 축 코딩]

###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 핵심 범주(Core Category)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은 엔데믹 시대에도 참여·경험·연결을 유지하는 공동체 구조이다.”

#### EPIC 연결 통합 분석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EPIC 구조와 통합된다.

- Participatory → 소그룹 토의 구조를 통해 유지됨
- Experiential → 적용 중심 학습으로 강화됨
- Connected → 관계 기반 공동체로 유지됨
- Image-driven → 향후 보완 필요

#### E. TEE 소그룹 공동체 학습 수료자 소감문

[사례1 - 수료자: 곽경현/ 26세 / 청년/ 남자]

#### 풍성한 생명 간증문

곽경현

군대를 전역한 후 복학을 앞두고 2년간 쉬었던 학업을 다시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과연 풍성한 생명을 함으로써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제가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일정은 잡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권유하셨고 거절을 하지 못한 채 풍성한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후회할 것 같았던 시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뻑뻑할 것 같았던 시간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로웠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했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평안해졌습니다. 풍성한 생명 첫 모임이 끝나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짐을 느꼈습니다. 2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체감하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주시고 여유를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신앙생활을 하며 간과하며 지나쳤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마셨던 성찬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심을 표징으로 나타내며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모임이 끝난 후 한 주간 실천 과제를 행함으로써 배운 점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하며 삶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실천 과제를 나눔으로써 각자의 삶과 생각을 나누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삶에서 저의 부족함을 알게 하였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부를 하며 나만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신앙에서의 고민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해주며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생명과 함께하며 성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처럼 앞으로도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례2 - 수료자: 염철민/ 46세 / 집사/ 남자]

그리스도인과 일

염철민 집사

처음 비대면 교육으로 모임을 시작할 때 비대면 교육은 처음이라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교육이 대면교육 못지않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TEE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려고 애쓰며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일을 그저 가족들을 부양하는 필수적인 도구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과 직장생활에서의 상하관계와 여러 가지 부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불평만 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 앞의 힘든 것만 보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자랑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며 여러 가지 회사의 대우가 부당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함께 들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일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충고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교육을 진행해 주신 전해권 장로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던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원활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3 - 수료자: 김상우 / 38세 / 집사/ 남자]

< TEE 그리스도인과 일 소감문 >

김상우 집사

저는 2011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이래 올해로 만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11년, 저는 제게 맞는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주위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회사를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파송예배 때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주소서” 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 순간 직장일과 믿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이번 “TEE 그리스도인과 일 “을 공부하면서부터 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일”의 범위를 폭 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지 회사에서 하는 경제수단을 위한 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TEE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그런 후에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죄악과 형벌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복입니다. 성경에서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고, 일을 하는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땅을 다스리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게 부여된 가정에서 부모와 가장으로서의 역할, 교회에서 집사직분과 찬양대로서의 역할 등도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일”이고, 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정의에 대해 다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란 ① 힘써 행하고, ② 나 자신이 충족감을 얻으며, ③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④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일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듯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간 성벽을 구축하는 동안에 네 번이나 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조롱과 무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허위 소문을 내는 등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하였으며, 성벽의 방비를 강화하고, 함께 하는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고 형제 자녀, 가족을 위해 싸우자고 격려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벧전 5:8).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은 자라면 어떤 방해와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는 사탄에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전 같았다면 한참 고민하면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고, 어떤 실패와 방해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례4 - 수료자: 송유현 / 35세 / 성도/ 남자]

TEE 공부(풍성한 생명) 소감문 송유현

송유현 성도

유성교회 새신자 수료 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3달 여의 TEE 공부과정인 “풍성한 생명” 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모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어릴 때부터 주일에 한 번씩 반갑게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많았던 교회였기에 그 안에서서의 분열의 아픔과 상실도 컸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방황과 탕자의 생활을 하던 끝에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기한이 되었고 저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결혼을 시작으로 회사 선배님에게 추천을 받아 아내와 같이 유성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TEE 공부” 와 “성가대” 봉사를 섬기며 지친 영을 위로 받고 있었습니다.

TEE 공부 첫 번째 과정인 충성한 생명은 단순히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조원 간에 토론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 학습법을 통해 인도자/조원 모두가 서로 은혜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남이 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면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던 저는, 한과 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실천 과제로써 적용해 가며 조금씩이지만 변화가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반부 과정까지 은혜를 받으며 긍정적 에너지로 화를 내는 횡수가 줄어들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려는 마음가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아쉽게도 직장에서의 고난이 극에 달함에 따라 TEE 공부도 끝나갈 무렵, 역으로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긍정의 삶을 이어 나가질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해 나갔던 순간들이 원래 없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까지도 고난은 아직 진행 중이고 종지부를 찍지 못했지만, 마지막 학습 과정인 18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의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믿음 생활을 통해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5 - 수료자: 나현순 / 35세 / 집사/ 여자]

TEE소그룹공동체학습 소감문

풍성한 생명

나현순집사

교회 등록 후 성경공부를 참여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구역장님의 권유와 설교 말씀 중 Tee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신청해서 풍성한 생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몸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늘 믿음의 자리에서 교체하고 떡을 떼며 서로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기에 더욱 이번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점검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성품의 변화를 원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저를 신앙의 변화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성경공부를 인도해주신 최혜경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태어날 아이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어 나가도록 1000대에 이르는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새생명 저의 모든 소유물은 제 것이 아님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풍성한 생명 과정에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 과정인 신앙의 토대 과정도 참여해서 유성장로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봉사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과정마다 함께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umin Kim

Place and Date of Birth: Incheon, South Korea, July 11, 1979

Parent's Names: Kim Jung-hoon and Hwang Sun-yeon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UNHO HIGH SCHOOL</b> 375, Musimseo-ro, Seowon-gu, Cheongju-si ,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22, 1998
Collegiate: <b>Hannam University</b>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34430, Republic of Korea	<b>BA.</b>	Feb. 21, 2007
Graduate: <b>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b> 41 Hannam-ro 88beon-gil,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b>M.Div.</b>	Feb. 16,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Jumin Kim

Name typed

March 17. 2026